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협회는 국산품의 보급 확산 및 대중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 지원을 강화키로 했으며, 아울러 국

산품활성화 일환으로 통상회비 납입제도의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

방사선중사지정보중양등록센터구축 중간 보고회



협회는 12월 28일(화) 협회 회의실에서 방사선중사 자정보중양등록센터구축 사업 진도 중간 보고회를 가

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착수부터 현재까지의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진척사항을 중심으로 ▲ 분석/설계 ▲ 업무별 프로그램 구현 ▲ 하드웨어 구축계획 등의 경과 보고 ▲ 시스템설계 ▲ 업무별 설계현황, 주요 issue 사항 등의 추진현황 및 ▲ 센터홈페이지 화면 설계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 되었다.

지난 8월 ISP(정보화전략계획수립)작업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 센터구축사업은 우리협회가 최초로 정부예산(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 31일까지 총 10개월 동안 수행되며, 대상정보기술(주)에서 동 사업수행을 주관하고 있다.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2004년 원자력안전백서 발간

과학기술부는 「2004년 원자력안전백서」를 발간하여 전국 200여 기관에 배포하였다.

2004년 원자력안전백서는 2003년 한해 동안의 원자력안전정책과 안전규제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규제 총론,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 방사선 안전관리, 환경방사능 감시, 방사능방재, 원자력 국제협력, 원자력안전규제 기반구축 등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원자력 안전관리 분야의 관심을 충족시키고 관련 전문가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통계자료와 함께 도표를 수록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으로서 자연재해와 전력수요에 대비한 하절기 원자력발전소 안전특별점검결과, 고리 원자력 1호기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심사결과, 매월 첫 번째 화요일의 「원자력안전점검의 날」 제정·시행, 신속한 정보교환과 실시간 규제를 위하여 PDA를 활용한 e-검사제도 도입·시행, 원자력발전소 주재원 중원 등 안전규제 전문인력 확충 및 종사자피폭저감화 중점추진과제 선정·추진 등이 수록되어 있다.

2004년 「원자력안전백서」는 다음 달부터 교보문고에서 구입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마크」 7개 신규 부여

과학기술부는 12월 27일(월) 11:30 / 노보텔 호텔에서 제9차 원자력안전마크 수여식을 갖고, 한국원자

력연구소(소장 장인순)의 원자력로봇 램 및 이리듬-192 방사선원 어셈블리, 두산중공업(사장 김대중)의

원자로계통 노내 핵계측기 밀봉체 교체기술 등 4개 부서, 2개 기술 및 1개 제품에 대해 각각 원자력안전마크를 수여했다.

우수 부서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로봇 랩, 한국전력기술(주)의 안전분석팀, 원자력의학원 방사선안전관리팀, 성균관대학교의 방사선안전관리실 등 4개 부서는 우수한 인력과 시스템으로 원자력안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원자력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이 인정되었다.

우수 기술로 선정된 「원자로계통 노내 핵계측기 밀봉체 교체기술(두산중공업)」은 교체기술의 국산화로 수입대체 효과 48억원 및 교체작업기간 단축 등 방사선안전 및 작업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방사선 구역 내 밀봉체 교체시 자동 튜브 절단 및 용접기술 개발로 원자력안전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원전용 계측 제어시스템에 대한 기기검증체계 구축(산업기술시험

원)」은 원전용 제어·계측기기의 내 환경(온도·압력·습도·전자파)시험, 내진시험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절차서를 마련하여 기기 검증설비와 시험절차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이리듬-192 방사선원 어셈블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사선목록에 국내 최초로 등재된 제품으로 국내·외 공급된 4,000개 이상의 제품중 한건도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안전성 및 내구성이 인정되었다.

원자력 안전마크는 원자력안전문화 확산 및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02년 12월 신설되어, 원자력안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관(또는 팀)·기술·제품을 분기마다 1회 선정하여 원자력안전마크를 수여해 오고 있으며, 올해 4/4분기까지 27개 기관(부서)·기술·제품이 선정된 바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동 방사선원에 GPS 단말기 부착

오는 2006년 1월부터 위성을 이용해 이동 방사선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관리하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방사선원 위치추적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은영수)은 지난 3월 GPS 방사선원 위치추적 관리시스템의 이동 위치추적 단말기와 위치추적기술, 중앙관제시스템 등 개발에 착수, 2005년 개발을 완료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방사선조사기에 GPS단말기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내에는 비파괴 검사업

체들이 사용하는 이동 방사선원이 1천여개가 있다”면서 “이동 방사선원의 분실·도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을 개발, 전국의 방사선원 위치와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방사선원을 분실했을 때 사업자의 신고로만 분실여부를 알 수 있었으나 이번 방사선원 위치추적시스템이 실용화되면 방사선원의 실시간 감독·관리가 이뤄져 도난·분실때 이동경로를 추적,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된다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설명했다.